

국제표준화회의의 참가보고

제3회 CDMA 글로벌 로밍 심포지엄

이혜령 / SK텔레콤 글로벌로밍팀 과장
박정식 / TTA IMT-2000 협력팀 팀장

1. 서론

제3회 CDMA 글로벌 로밍 심포지엄(이하 CGR : CDMA Global Roaming Symposium)이 지난 2003년 12월 11 ~ 12일, 2일간 미국 마이애미 Intercontinental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본 심포지엄은 CDMA 종주국인 한국의 위상을 살리고 향후 CDMA 국가간 국제 자동 로밍을 활성화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통신부(MIC)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중심이 되어 추진된 사항으로 이번이 세번째 심포지엄이었다. 제1회 심포지엄은 MIC주최, TTA 주관으로 2001년 10월에 서울에서 개최하였고, 제2회 심포지엄은 그 이듬해인 2002년 11월 역시,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본 제3회 심포지엄은 보다 발전적인 심포지엄의 개최와 해외 사업자 및 참가자의 원활한 참여확대를 위해 국제협력 기구의 하나인 CDG(CDMA Development Group)와 MIC가 공동으로 주최하여 개최되었다.

본 제3회 심포지엄은 중·남미를 비롯하여 아시아 태평양 주요 CDMA 사업자 및 퀄컴, 루슨트 등의 주요 Vendor, Aicent, Fair ISAC, CIBERNET 등 다

양한 관련 분야 사업자까지 20여개의 이동통신사업자를 포함하여 총 80여 명의 참석자들이 함께 한, 뜻깊은 국제적 행사였다. 사실 전 세계 이동통신 방식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GSM 진영에서의 보다 체계적이고 활발한 국제협력 기구 및 표준화 기구들의 활동, 특히 '로밍'이라고 하는 GSM의 선도적이고 체계화된 서비스에 비하면 CDG 기구내 IR (International Roaming) 미팅이 유일하게 CDMA 진영에서 로밍 관련 이슈를 논하는 회의임을 감안할 때 실로 금번 심포지엄에 대한 평가는 그 표면적인 결과만으로도 진실보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될 수 있다 하겠다.

2. 주요 심포지엄 내용

첫날인 12월 11일 CDG내 Asia-Pacific Programs Director인 James Person과 한국 MIC 김광동 사무관의 축하 및 환영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포지엄이 시작되었다.

첫 날 심포지엄은 다음과 같이 몇 개의 주제별로 나누어 연설자들이 발표를 하고 발표가 끝나면 곧 바로

자유로운 질문 및 토의가 이루어지는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참가자들의 매우 활발하고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졌다.

○ Global Perspectives

여기서는 주요 사업자들이 로밍 시장의 현황 및 전망을 다루었는데 호주 Telstra, 북미 Sprint, 아시아는 한국 IITA(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서 그리고 남미의 Unefon이 각자 나름대로 현황을 비롯한 주요 이슈들을 발표하였다. 특히 Telstra는 GSM 로밍 서비스 경험을 바탕으로 CDMA 로밍과 관련한 장·단점 분석 및 향후 CDMA가 해결해 가야할 방향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슈들을 상세히 다룬 발표를 하여 상당한 호응과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 Business Case for Roaming

본 섹션에서는 켈컴과 Analyst가 로밍에 대한 비즈니스 이슈들을 발표하였는데 특히 켈컴은 International Roaming business에 관하여 개론적으로 살펴보면서 본 비즈니스를 최소한의 비용으로 건실한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value-added service로, 매우 낙관적으로 발표를 하였다. 이 점은 Roaming Business를 하는 입장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겠다.

○ Enhancing Today's Roaming Service

이 부분에서는 CDG Roaming Team의 리더였던 Terry Yen이 그간의 Roaming Team의 주요 활동들을 간략히 소개하였다. 그리고 특히 켈컴에서 PRL(Preferred Roaming List)과 관련하여 나름대

로의 구체적인 개선안을 제안하였는데, CDMA Global Roaming이 활성화 되면 될수록 이 PRL상에 operator와 그에 해당하는 Network 정보들을 계속적으로 추가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단말기 메모리나 R-UIM상의 용량에 분명 한계가 있다. 이에 현재 PRL 정보를 좀 더 광역화하여 나타내는 방법으로 적은 양의 DB로 많은 수의 Partner들과 Network들을 메모리에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는데 나름대로 구체적이고 현실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또 한가지 International Roaming Fraud와 관련한 최근의 추세와 이에 대한 솔루션을 FairIsaac이 소개했는데 이는 CDMA Global Roaming이 어느 정도 시장기반을 확장해 가고 있는 궤도에 올라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 New Roaming Capabilities

CDMA Roaming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이 부분에서도 Data Roaming, MMS Interworking, Value-Added Roaming Service 등 다양하고 풍성한 내용의 발표와 토론들이 오고 갔다. 특히 SK텔레콤은 Packet Data Roaming 상용화의 경험을 토대로 한층 진일보한 Data Roaming 서비스들을 소개하였고 이를 시작으로 관련 분야에서 향후 CDMA 로밍이 나아가 할 방향에 대하여 대변하는 다양한 의견들을 소개하였다.

둘째 날은 cdma2000과 W-CDMA간의 로밍이슈, 사업자 관점에서의 로밍이슈, 제조사 관점에서의 로밍이슈 등 총 3개의 주제를 나누어 관련 이슈의 Panel들이 진행하는 Panel 토의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되어 여러 가지 이슈들을 다루었다.

3. 결론

서두에 언급하였듯이 이번 제3회 CGR 심포지엄은 MIC단독 주최로 개최되었던 1회 및 2회 심포지엄과 달리 CDG와 MIC의 공동주최로 개최되어 사업자 및 국제전문가들의 참여도가 확대되고 보다 다양한 이슈들을 전반적으로 깊이있게 다룬 의미있는 국제적 행사였다.

그러나, 본 심포지엄이 CDG와 MIC의 공동주최 형태로 개최되었으나 행사진행의 거의 대부분이 CDG에 의하여 주도적으로 진행되어 공동주최라는 부분을 참석자들에게 인식시키는데는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리고 향후 본 심포지엄에 대한 방향성 정립 및 향후 심포지엄에 대한 CDG와의 관계 정립이 숙제로 남아 있다.

분명 CDMA 로밍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런 국제적인 자리는 반드시 필요하고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한다. 그 일을 우리 한국의 정부와 사업자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훌륭하고 자랑스러운 일은 없을 것이다. 더 나아가 CDMA 사업자들이 모여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필요한 정보교류와 협의를 통하여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가 하며, CDMA 로밍 기술을 한층 발전시키기 위하여 보다 힘 있고 구속력 있는 협의체의 구성이 절실하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개최될 제4회 심포지엄에서는 보다 발전된 모습으로 나아가길 바라며 사업자 및 관련 제조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해 본다.

* 심포지엄 발표내용

<http://www.cdg.org/news/events/CDMASeminar/index.asp#031211>.

